

한기총 24대 대표회장 선거, 김노아 목사 단독후보 결정

엄기호 목사, 서류 미비로 제출 서류 반려돼 후보자격 취소



김노아 목사(예정성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와 관련, 엄기호 목사의 제출 서류를 반려하고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로써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김노아 목사 단독으로 치러지게 됐다.

한기총 선관위 서기 황덕광 목사(예정 합동보수 총회장)는 당초 정견발표회가 예정된 22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 발표하기를 “선관위에서는 기호 1번 김노아 목사의 서류에 대해서는 하자 없음을 받고 기호 1번 추첨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기호 2번 엄기호 목사는 처음 제출된 서류 재확인 과정 속에 서류가 미비되고 보완할 것이 많아, 후보의 제출 서류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서기 황 목사는 “이 시간 이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김노아 목사 1번 후보 단독으로 진행되며, 오늘 정견 발표는 단독 후보이므

로 정견발표가 없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선거 일정은 오는 30일(화)에 있을 예정이다.

한기총 소위원회는 위원장 류성춘 목사, 위원은 황연식 목사, 정춘모 목사, 강세창 목사, 접수관리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식 목사, 위원은 이영욱 목사, 송재량 목사, 투․개표 소위원회 위원장 엄정목 목사, 위원은 김정택 목사, 이병일 목사, 설상문 목사, 흡석 소위원회 위원장 김원남 목사, 위원은 성경모 목사, 김경만 목사,

서승원 목사 등이 결정되었다.

한편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을 했으나 서류 미제출로 거부당한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업무중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 또 한 번의 소송돌이가 예상된 가운데 한기총의 위상은 물론 한국교회에 명예를 실추시킨다면서 이에 대해 한기총 선관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현재 한국교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추모

제33회 킹덤 데이 퍼레이드-한인들 동참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탄생 89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는 킹 목사가 지난 1968년 4월 암살당하지 50주년을 맞이한 해로 ‘제33회 킹덤 데이 퍼레이드’가 지난 15일 오전 11시부터 사우스 LA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러버드의 버몬트 애비뉴~크랜서 블러버드 구간에서 펼쳐졌다. 연도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나와 화려한 꽃차, 마칭밴드, 오픈카 등의 화려한 행렬을 환호 속에 지켜보며 인종화합의 기초를 다진 킹 목사를 기렸다.

한인사회에서도 김용과 무용단 단원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참가해 멋진 춤사위로 한인들과 흑인들이 하나 되는 꿈을 표현했다. 특히 퍼레이드에는 그랜드마셜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이 참

석 주민들과 함께 행진했다. 그 밖에도 에릭 가세트 시장, 허브 와슨 LA시의장, 케빈 드 레온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 짐 맥도널드 LA세리프 국장, 찰리 백 LA경찰국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전 동성 세계문화스포츠재단 대표 등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참여해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흑인들을 위한 민권 운동에 앞장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흑인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폭력 저항을 주장했던 킹 목사는 흑인들의 민권을 제약하고 있던 잘못된 전통과 법령들을 철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가 주도한 민권 운동은 1963년 8월 28일 인종을 초월하여 총 20

여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 킹 목사의 연설을 통하여 절정에 달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의회는 투표, 교육, 고용, 주거, 공공시설 이용 등에 있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킹 목사는 1968년 암살당했다. 연방의회는 1986년 1월 셋째 월요일을 그를 추모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지정했으며 이날은 1994년부터 국경일(연방 공휴일)이 됐다.

이현욱 기자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달리자’

LA한인회 신년하례식을 통해 새로운 비전 제시

각단체들과 협력 공조를 통한 희망찬 LA만들 터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지난 2일(화) 오전 11시 JI그랜드호텔에서 2018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희망의 무술년 새해를 맞아 환한 출발을 다짐했다.

스티브 강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하례식은 국민의례 후, 박종대 목사(LA한인회 부이사장)가 축복기도를 한 뒤, 로라 전 회장이 신년사를 했다. 로라 전 회장은 “지난 한 해의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아픔까지 모든 과거의 기억들은

이제 추억의 앨범 속에 사라지게 됐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행복과 기쁨이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라 전 회장은 “새해에는 복수국적자, 입양인 권익신장, 한인단체들과 협력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히 소망이 있다면 한인 가정과 일터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생동감이 넘치는 삶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



다. 살기 좋은 LA,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LA,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희망찬 LA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미셀 장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2018년도 총회 강도사 고시(공고)

1. 고시일시 주후 2018년 2월 9일(금) 오전 11시

2. 고시장소 총회본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층), ☎02-835-2606~7

3. 고시과목

(1)필기교사

조직신학 · 교회사 · 헌법

(2)논문제출

제목 : 목사의 소명과 사역 (분량은 A4용지 10매 이상)

(3)설교실기

본문: 요3:16, 방법: 약 3-5분 분량의 실제 설교를 하며, 설교문은 사전 제출함.

(4)면접고사

필기교사와 동시에 실시

4. 응시자격

웨신대 M.Div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본 총회 인준 신학교 졸업자,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5. 고시전형료

30만원 / 입금계좌: 우체국 013821-01-002737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6. 고시청원서 배부 및 접수

*배부 및 접수처: 총회본부

*배부 및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고시 청원서는 총회 사무처에서 교부받거나, 총회 홈페이지(http://ws21.org)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자료실 총회서식 7번/강도사 고시 청원서)

기독교(종교) 단체가 알아야할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1.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 '종교단체 사무행정지도 목사·전도사 자격자도 근로계약서 제출 의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정비에 대한 요구 및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업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체제와 중요한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원활하게 세금을 낼 수 있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연재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해 먼저 명확하게 짚어야할 부분은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다. 소득세법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한다. 종교단체에서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반주자나 관리집사 등 종교의식을 직접 집행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니라면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교회에서 세금을 신고할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종교관련 종사자 범위에는 목사나 전도사, 강도사, 원로목사, 협동목사, 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한 경우) 등이 들어간다. 다만 해외선교에 대한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

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며,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택일에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청빙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는 별도 작성이 필요하다. 법원은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경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향촌직원으로 분류되는 장로, 권사, 집사는 봉사직으로 무보수다.

반주자, 지휘자, 사무행정직원, 관리집사, 운전기사, 음향미디어직, 기타 기능직 등의 종사자는 종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임금을 줄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도 목사나 전도사 자격자의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포함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는 편이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유리하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만큼 세금 유불리를 떠나 가급적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 "종교활동 도서비라도 정기적으로 목회자에 입금 되면 과세"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중 과세되는 것과 비과세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까.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에 따르면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와 사례비,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은 과세 대상이다. 종교활동에 관련된 도서비라도 정기적으로 목회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 비과세 소득으로는 종교활동비를 들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종교활동비로 보고 있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 통장에 입금할 때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비과세된다. 이밖에도 목회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을 소속 종교단체가 지급할 때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경영학석사(MBA)나 로스쿨 등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 없는 학자금 지원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학자금은 과세 대상이다. 소속 종교단체가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비용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식사를 현물이 아닌 매월 일정액으로 지원할 때는 월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출산지원금이나 6세 이하 보육지원금도 마찬가지다. 목회자가 소유한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사택 비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하지만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 사용이익은 비과세된다. 목회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출장비와 여비 등은 실비를 장으로 입금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 비과세 소득으로는 종교활동비를 들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종교활동비로 보고 있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 통장에 입금할 때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비과세된다. 이밖에도 목회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을 소속 종교단체가 지급할 때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경영학석사(MBA)나 로스쿨 등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 없는 학자금 지원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학자금은 과세 대상이다. 소속 종교단체가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비용에 상관없이

3. 종교인들 세금으로 얼마나 낼까 "3인 가족 월 500만원 소득 종교인, 18만 1020원 원천징수"

종교인은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20세 미만 자녀 한 명과 배우자를 둔 종교인은 월 300만원의 받을 때 월 1000원 정도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경로우대, 장애인, 20세 이하 자녀는 각각 1명씩 더 추가되므로 이 종교인의

공제대상 가족 수는 3명이 아닌 4명으로 계산된다(표 참고). 월 500만원을 받는 같은 조건의 목회자는 18만1020원을 납부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는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가 명시돼 있다. 간이세액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간이'로 계산한 금액이다.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목회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해 세무서에 납부한 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세액과 미리 냈던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에 따르면 세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연간소득 구간에 따라 80~20%로 다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다. 이 금액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와 연금소득공제 등을 제한 뒤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세액공제액을 뺀 뒤 12개월로 나누면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등을 일컫는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하기에 조세 부담이 적다. 필요경비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의 1600만원에 2000만원 초과 금액의 절반을 더해 계산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계산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도 산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총지급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총지급액의 2.3%다. 간이세액에서 기부금은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정한 임시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세액은 증빙된 기부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신고는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매뉴얼은 "종교인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4. 세금신고·납세는 이렇게 "원천징수는 매월 10일에... 2회 신고할 수도"

종교인 과세에 따른 소득신고와 납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에 따르면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해 신

고·납부하는 방법과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법정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게 원천징수다. 사례비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국민일보 2018년 1월 4일자 26면 보도)에 따른다. 원천징수는 매월 하는 게 의무지만 종교단체는 편의를 위해 6개월씩 모아 7월과 1월, 연 2회 신고·납부하는 반기별 특례를 받는다. 원천징수는 소득구간별로 미리 세금을 징수하므로 필요경비 등을 감안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거쳐야 한다. 종교단체는 과세 기간 다음 해 2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실제 낼 세액과 원천징수세액 간의 차액을 정산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이 과세 기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 외 사업과 근로,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다.

종교단체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다음 해 3월 10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늦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교인 과세 시행 최초 2년은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지급명세서에는 사례비 이외에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매뉴얼은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공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다. 모든 세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교단체 및 종교인 대상 설명회 개최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명예이사장: 장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신(편)입생 모집

학 과	수업연안	자 격
학 부	통신과정	8학기 세례, 고졸이상
	목회학과	6학기 세례, 학력제한없음
	신학과	8학기 세례, 고졸이상
연구원	4학기	신학교 졸업자
신대원	6학기	일반대학 졸업자
학술원	6학기	석사학위소지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인준
- (미)Cumberland University 학점교류
- 과정수료 후 고시를 통해 웨신총회에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목제도 있음.
- 입학전형
매년 2월, 5월, 7월, 9월, 11월
- 종업식 : 매년 2월 9일
- 문의 : 010-2802-3928

070-7581-0012

학교 위치 : 천안서초고등학교 부근

세계로신학학술원
http://www.garpc.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만남 행복만성도(신 33:29절)



장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경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지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집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쏜 에 배 시 간 안 내 쏜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표어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視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영마을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 · P010-8268-0092, 010-3710-9119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목사 곽완근

주일에배만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예장합동보수 2018년 신년하례예배

총회장 이규필 목사 교단 새해주제 “새해 새마음 새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는 지난 1월 9일 오후 1시30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에서 예장합동보수 2018년 새해 신년하례예배를 서기 임상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전국에서 목사 장로 등이 12시까지 참석하여 동천교회 성도들이 예약한 식당에서 소 한 마리 정식으로 식사를 한 후 오후 1시30



분 신년하례감사예배가 시작되어 제1부총회장 강대일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가 성경봉독(고후 5:16)을,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새해 새마음 새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새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목회에 승리하면서 2018년 새해 총

회 목표도 새해 새마음 새목회를 위한 역사가 있기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었으니 지난 것들은 다 잊을 것과 버릴 것과 끊을 것은 끊고, 앞으로 나가자고 했다. 이것은 곧 목회자의 삶이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총회장은 새로운 해 새마음을 갖자면서 하나님

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은혜와 복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선한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목회자에게 필요하며 이것을 위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회개 송인섭 장로가 헌금기도를 하고, 총무 조영만 목사가 광고를 한 후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총회장 김영국 목사의 인도로 2부 특별기도회에서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중노회장 김국태 목사, 2.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경남노회장 감치현 목사, 3. 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서경노회장 김주현 목사, 4. 노회와 전국교회를 위하여 서인경증노회장 박용순 목사, 5. 총회임원과 노회임원을 위하여 수원증경노회장 김상대 목사, 이날 자리를 제공한 동천교회를 위하여 호남노회서기 이동철 목사 등이 기도하고 인도자 김영국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일정을 마쳤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는 서인자 목사 간증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461번지 은혜동산교회를 섬기는 서인자 목사는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다 2010년 12월 10일 은혜동산교회로 오게 되었다. 이 지역은 하루 6번 버스가 다니고, 눈이 오게 되면 차량운행도 어렵고, 또 고개 하나를 넘기 위해서는 30분을 걸어야만 넘을 수 있는 산간벽

지에 온지도 3년째이다. 2013년 12월 성탄절 즈음 캄캄한 밤 9시경 뚝뚝 노크소리에 ‘이 밤에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는데 “예~ 일산에서 성미 쌀을 드리려고 왔다는 것이다. 쌀을 받아놓으”며?라고 묻자 “기도 중에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이곳을 찾기 위해서

홍천시내에서부터 3시간을 헤매다가 찾았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낮도 아니고 물어볼 사람 하나 없는 시골 길 캄캄한 밤 9시쯤에 저의 교회를 찾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몹시 추운날씨에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서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 그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손길! 두 분을 소개하고 있다. 20년 동안 이들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마음을 실천하며 놓여온 산간벽지에 어려운 교회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일산에 사는 부부 용운정 권사, 남편인 유홍선 장로이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두 분!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쌀 전달만 하고 간다. 2017년 12월 크리스마스에 그동안 그분들의 섬김의 마음을 전해 들었다. 저희 교회에 4년째 20kg 쌀 4포 어느 해는 5포를 전해주는 사랑의 손길이 정말 귀하지 않는가? 처음에는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형제, 친척, 지인들까지 동참해 주셔서 많은 교회를 섬기신다고 했다. 용운정 권사, 유홍선 장로 두 분이 가지고 온 쌀가마니에 섬기시는 이들의 기도 제목이 써있는 데 연말쯤 되면 쌀에 적어 놓았던 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한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랑의 쌀 전달을 위해 한 달 전부터 금식하면서 준비한다는 말에 큰 감동이었다고 말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셨다. 저희 교회는 아직 작고 부족한 시골교회이지만 항상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요 맛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용운정 권사, 유홍선 장로는 계속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에서 승리한 것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섬기는 두 분에게 서인자 목사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강원도 홍천 깊은 산골마을에서 서인자 목사

안기연 신년하례회 및 부활절 연합예배 발대식

“가자! 생명의 빛으로 예수 부활! 예수 능력! 모이자! 와 스타디움으로”



안산시기독교연합회는(이하 안기연) 지난 1월 11일 (목) 오전 11시 안산에 위치한 AW컨벤션 웨딩홀(김판수 사장)에서 200여명의 안기연 소속 목회자 및 성도와 각 단체 기관장들을 참석한 가운데 2018 안기연 신년하례회 및 부활절 연합예배 발대식을 가졌다.

먼저 삼일부회장 권병학 목사(하늘빛내리는교회)의 인도로 드려진 1부 예배에서는 실무부회장 이찬영 목사(비전교회)의 기도, 서기 권일 목사(아름다운성빛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회장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 원로)는 행1:8을 주제로 “바람 들고 병들고”란 제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바람으로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현실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성령 충만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아무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성령의 불로 안산시를 복음화 하자고 작시했다.

2부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발대식에서 박천영 목사(참종은교회)의 은혜로운 트럼펫 연주를 시작으로 안기연 회장 최현규 목사(본오교회)의 인사 말씀(아래 전문), 그리고 안산시의회 이민근 의장이 참석하여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특별기도에는 공동회장 김유민 목사(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가 나라와 민족 지도자와 사회 안전을 위하여, 공동회장 이초주 목사(소망교회)가 2018년 안산시 평안과 발전을 위해, 상록교구협의회장 김성기 목사(서현교

회)가 4월1일 안산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단원교구협의회장 하연오 목사(한소망교회)가 안기연 970여 교회와 안산 이주민을 위해 대표로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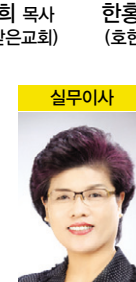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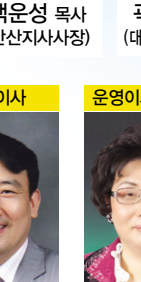
또한, 안기연 최현규 회장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하여 각 교단 대표들을 공동회장으로 위촉하여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위촉식을 가졌으며, 안기연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AW컨벤션 웨딩홀 김판수 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안기연 회장과 임원들,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부활절 연합예배의 성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가자! 생명의 빛으로 예수 부활! 예수 능력! 모이자! 와 스타디움으로”라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자문위원 기수철 목사(샘골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안기연은 오는 4월 1일 2시30분 잠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를 강사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교단별로 순서를 정하여 매 주 준비 기도회를 가지며, 안산시 복음화를 위한 성령의 불을 밝히려고 한다.

이날 안기연 최현규 회장은 인사사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신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모든 기관장, 귀빈을 향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새해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이어 새해는 3·1절 100년(99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의 선배들은 나라의 위기에 분연히 일어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가 자주민임을 선포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6·25이후 잿더미에서도 기적 같은 경제성장



지저스타임즈 · 언론부흥사협의회

사 장	대표이사	영예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사장	부사장	상임교문	자 문	자 문	수석상임이사	사무국장	총무국장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정기남 목사 (발행인)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정대성 목사 (상성중앙교회)	강요셉 목사 (순복음빌라교회)	이윤자 목사 (부인발명중앙교회 부국장)	박한규 목사	이홍희 목사 (죽목받은교회)	한홍교 목사 (호현총회장)	박형희 목사 (성원교회)	곽영민 목사 (예복총회협 대표회장)	백운성 목사 (안산지사사장)	곽동훈 목사 (대신·중무노회장)	홍항표 목사 (강목총회사무총장)	박동호 목사 (별명교회)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박용숙 목사 (주성왕경예언교회)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실무이사	실무이사	실무이사	총무이사	운영이사·회계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샘교회)	이기학 목사 (포항아름다운교회)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장)	이상중 목사 (새문진교회)	곽완근 목사 (두란노교회)	김상익 목사 (신동교회)	노병주 목사 (취재부장)	오종설 목사 (홍성제일교회)	박연자 목사 (광은교회)	김선우 목사 (안부협공동회장)	배정희 목사 (민음교회)	류기형 목사 (협동총창신대원 학장)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김부경 목사 (갈보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창숙 목사 (예능부기자)	우재성 목사 (영광월드교회)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지저스타임즈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에서는 문서선교에 뜻을 같이할 이사님과 능력 있는 부흥사님의 가입을 전적 환영합니다. 현재 인터넷(http://jtntv.kr http://cpj.kr) 두 곳에서 많은 정보와 교계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음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pj@naver.com

■ 靑松 건강칼럼 (616) 새해 계획 1순위 ‘다이어트’

다이어트(Diet)와 운동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새해가 되면 금연(禁煙), 금주(禁酒) 또는 절주(節酒), 운동, 다이어트 등을 실천하겠다고 자신과 약속을 한다. 대개 ‘다이어트’는 새해 계획 중 최상위권에 오른다. 그러나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체중 조절은 감량부터 유지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 다이어트 방법으로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제한하여 섭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식사 행동을 바꾸는 행동 수정 프로그램, 신체활동을 늘려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운동 등이 있다. 균형 질식의 식이요법(食餌療法)으로 체중감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줄인 체중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성공한 ‘다이어트’로 간주한다.

미국의 예술가 엘리노어 앤틴(Eleanor Antin)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37일 동안 체중 5kg을 줄였다. 앤틴 교수는 매일 카메라로 앞모습과 뒷모습,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의 전신사진을 찍어 몸의 변화를 기록했다.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날씬해지는 사진 148장을 모아 ‘썬아내기: 전통적 조각’이란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식과 운동부족으로 배불뚝이 남성이 40%(체질량지수 25 이상)을 넘어 성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인 비만율(BMI 25 이상)은 34.8%로 2015년 33.2%보다 1.6%포인트 늘었다. 특히 성인 남성 비만율은 2015년 39.7%보다 2.6%포인트 상승한 42.3%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성인의 비만증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비만지수,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허리-엉덩이둘레 비(Waist-Hip Ratio, WHR), 피하지방(皮下脂肪) 두께 등이 있다. 체질량지수(體質量指數)는 체중(kg)을 신장(m)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수치이다.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비만의 진단기준은 체질량지수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하고, 허리둘레 기준으로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을 복부(腹部)비만으로 진단한다.

우리는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말을 흔히 듣지만 체중 관리의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高齡化)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과 같이 비만율(肥滿率)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동보’가 빨리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고지방·고열량 음식 섭취량은 늘어난 반면 운동량은 점점 줄어들어 후천적으로 살이 찐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흔히 비만으로 고생한 역사적 인물로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世宗大王)을 꼽는다. 세종대왕은 어릴 적부터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육류(肉類)를 좋아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독서에 열중하여 밤새 글을 읽었으나 운동은 멀리했다. 이러한 생활습관으로 세종은 풍보가 되었다.

세종대왕은 비만에 당뇨병(糖尿病), 피부병, 눈병 등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 이에 너무 많은 병을 달고 살아 42세(세종 21년) 때에는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오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겨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고 한탄했다고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실려 있다. 조선 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조선의 제3대 왕 태종(太宗, 1367-

1422, 재위 1400-1418)이 아들인 세종에 대해 안타깝게 여긴 점은 스킨한 살밖에 되지 않은 세종이 너무 뚱뚱하다는 것이었다. 태종이 세종(世宗, 1397-1450, 재위 1418-1450)과 함께 사냥을 가면서 “주상(主上)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몸이 비중(肥重)하시니 마땅히 때때로 나와 노니셔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만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관찰하면, 젊은이들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찐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나잇살’이 찌는 경우가 많다. 즉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장(成長)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성장호르몬 분비를 돕는 데는 근육운동이 좋다.

‘다이어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법을 택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특정 식품을 골라 먹거나 완전히 끊은 식이요법은 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매 끼니 닭가슴살만 먹거나,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피하는 식습관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다이어트법은 두세 달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막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찌 수도 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cortisol)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살이 찌는 것을 방해하고 내장지방을 축적시킨다. 따라서 코르티솔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 뱃살이 늘어날 수 있다.

저녁 식사 후에 또 음식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 밤에는 당분을 분해하는 인슐린(insulin)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며, 이에 야식(夜食)을 먹으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빨리 분해하지 못해서 여분의 포도당이 지방으로 몸에 쌓이게 된다. 따라서 취침 3시간 전 야식은 금물이다.

새벽 3시가 넘어도 야식이 배달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음식 배달 앱(application)인 ‘배달의 민족’이 2017년 5-11월까지 집계된 음식 주문 8400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밤 10시부턴 오전 3시 사이 접수된 야식 주문이 전체 주문량의 20%에 달

했다. 주말에는 이 비중이 25%로 올라갔다.

야식 인기 메뉴는 치킨(야식 전체 주문량의 46.7%), 한식과 분식류(10.2%), 곱창, 닭발(10.2%), 족발, 보쌈(9.1%) 등이며, 이들 음식은 하나같이 고열량과 고지방 먹을거리다. 편리한 배달 문화가 빈번한 야식 섭취로 이어지며,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族)이 보편화되고 있다. 혼밥족의 상당수는 외식을 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도시락 등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인기 도시락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칼로리가 높고 지방과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먹을 경우 비만해지기 쉽다.

편의점 도시락은 대체로 달고 짠, 이른바 ‘단짠’ 메뉴로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설탕과 소금을 맛있게 느끼는 본성이 있으므로 도시락 제조업자들은 소비자 입맛에 맞추어 음식을 달고 짜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단짠’ 위주로 구성된 도시락은 당분과 나트륨과다 섭취로 이어져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 당류(糖類) 섭취량이 하루 섭취 열량의 10%를 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비만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하루 2000mg 미만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먹기 편한 ‘간편식’ 시장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커졌으며, 도시락 열풍을 몰고 온 편의점을 위시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또는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리기만 하면 한 끼가 완성되므로 사람들은 간편식을 찾는다. 그러나 우려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영양 불균형이다. 즉 탄수화물, 단백질은 많은 반면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은 부족하다. 이에 간편식을 먹을 때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다이어트에는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꼭 등 록한 필요는 없다. 하루 30분 이상 약간 숨이 가쁠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면 되며, 30분 연속으로 할 수 없다면 10분씩 나눠서 하도록 한다.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등으로도 충분하다. 다이어트 중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는 체중이 5% 정도가 빠지는 2-3개월 후다. 이때부터는 체중 정체기가 시작되므로 운동으로 활동량을 늘려 남은 칼로리를 소모해야 한다.

요즘 집 안 거실에 고정자전거, 아령 등 운동기구를 두는 가정이 많다. 운동기구를 TV를 시청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사용하면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 운동을 꾸준히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첫 1-2개월은 식사 조절만으로 살을 빼고, 정체기가 시작되는 3-4개월부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체중달력’을 만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매일 자신의 몸무게를 확인하면 다이어트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경각심(警覺心)이 높아진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과거 줄였던 몸무게 기록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수면은 하루 6-8시간 충분히 자도록 한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stress)가 늘면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고 체내 지방을 축적한다. 음주(飲酒)를 하면 목속 지방 분해를 방해하므로 술자리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중국의 전통 차 ‘보이차’는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체중 감량은 열량섭취를 줄이거나 열량소비를 늘리면 된다. 그리고 몸의 지방을 제거하려면 균형질식과 더불어 육체적인 활동을 늘려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운동이 중요하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의 73%는 1주일에 최소한 3일 운동을 했다. 이에 비만인 사람은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100세 건강시대’를 준비하여야 한다.

3박자 건강칼럼 · 자기절제의 미학(71)

“다이어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황성우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충동적인 마음가짐으로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는 생활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지 단기적 처방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체중조절은 자기절제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정확한 체중감량 처방에 의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몸매를 갖는 일은 ‘투쟁’이 아닌 ‘예술’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예술이다.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침을 몇가지 소개하겠다.

첫째,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시작하라.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시작하라.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시작하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 피곤하고 긴장된 상태나 욕구불만이 쌓였을 때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약간의 긴장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긴장이 풀리면 식욕을 억제하기 힘들다. 특히 불규칙적인 식사나 수면부족, 휴식부족은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다.

셋째, 반드시 운동과 병행하라. 다이어트만 했을 때에 비해 운동과 병행했을 때 약 5배의 효과가 있다. 운동강도가 낮은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비만의 치료에 효과가 크다.

넷째, 활기차게 걸어다녀라. 걷기는 체내 지방 소모율이 높은 운동중의 하나이며 식전 아침산책이 가장 이상적이다. 엘리베이터를 멀리하고 계단

을 이용하라.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뒤편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라. 그만큼 걸을 수 있어 좋다.

다섯째, 칼로리를 낮춘 균형식을 하라. 고른 영양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의 보강을 위해 매끼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라. 그리고 생수를 즐겨 마시라.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음식 먹는 날을 정하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으라. 무조건 안 먹었다는 강박관념은 결국 인내의 한계시 때문에 다이어트를 망친다.

일곱째, 스트레스는 목욕과 운동으로 풀어라. 목욕은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운동은 무기력한 삶을 깨우는 도전과 성취감을 제공해 준다. 특히 운동을 하면 식욕이 조절되고 운동 후에 칼로리 소모가 계속되므로 다이어트에 대한 자신감을 부연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꾸준히 하라. 최소한 3개월을 하고 나서 결과를 논하라. 강박관념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생활에 솔로써 몇가지만이라도 이 원칙들을 준수하라. 자기절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소유할 자격이 있으며 이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인생전반에 적용된다. 그러기에 다이어트는 아무나 하는 것이다.

지저스타임즈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애독자 제위께

2018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이 벌써 창간 12년이 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32)672-3031(FAX겸용)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연세총회신학·신대원 신학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주/야)

※ 과정소개

● 신학부(신학대학과정)

교육기간	2년(8학기):1년(4학기), 방학없음
출석일	(주) 매주 1회(목), (야) 매주 1회(목)
대상	평신도 지도자 및 전도사, 목사후보생
자격	세례교인 이상, 학력제한 없음
특전	졸업 후 신대원 목회연구과에 입학가능함

● 신대원(목회학 석사과정)

교육기간	1년(반학기) (6학기), 방학없음
출석일	(주) 매주 1회(화), (야) 매주 1회(목)
대상	목사 및 선교사 후보생
자격	신학부 졸업자, 일반대학 4년 졸업자
특전	졸업 후 강도사 고시후 목사 안수 신대원 신학석사 입학 가능함

● 신대원(신학 석사과정)

교육기간	1년(4학기), 방학없음
출석일	(주) 매주 1회(화), (야) 매주 1회(목)
대상	목회자 연장교육, 교수지망생
자격	신대원 목회학 석사 소지자

● 개강일 2018년 3월 8일(목) 오전10시

※ 연세총신·신대원의 특징

- ① 본 신학원은 사단법인 세계기독교 연합(미국 I.A.소제)에 가입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계연합총회 산하의 목사후보생 양성기관입니다.
- ② 본 신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계연합총회에 소속된 직영 신학원으로 보수 개혁신학을 토대로 합니다.
- ③ 본 신학원 운영은 총회 지원과 총회 산하 교회와 개인의 후원금과 신학생들의 선교 헌금으로 하며 학비는 무료입니다.
- ④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회지도자 전문반(평생교육원)과 연계교육하여 총장령의 수료증을 받습니다.
- ⑤ 본 신학부 학생들은 교회 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알선하며 신대원 학생들은 본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본 후 목사로 안수하여 목회자역을 할 수 있습니다.
- ⑥ 시모님은 학력과 관계없이 신대원에 입학 가능함.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19(진영빌딩 210호)
인천시청 후문 맞은편, 경길빌도 건물, 인천시청역 3번출구 20M
문의 | 070-7518-0651 · 010-3641-0685

‘제5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개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 기독교가 했다”

‘제5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축하예배 및 축하행사가 5일 오전 서울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750여명의 원로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1부 예배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가 주관했다.

2부 순서는 한은수 감독(재단 총재)의 환영사에 이어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정근모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축하메세지, 림인식(노량진교회 원로)·지덕(한기총 증경대표회장)·김동권(예장 합동 증경대표회장)·이용규(한기총 증경대표회장)·유영권(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 목사의 축사, 후원기업 인증서 전달식, 신신목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2부를 마쳤다.

3부는 송용필 목사(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만찬기도, 서울지구총교회 문화선교회의 축하공연과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인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필요하며 목회에선 은퇴해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며 “은퇴 후에도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 힘써달



려며 또한 “이 자리는 평생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신 원로목회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은수 감독은 원로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해 달라. 하나님의 선하신 영적인 코치와 상담자의 역할을 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림인식 목사, 정근모 장로는 원로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가 소망을 품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며 강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48년 열린 제헌회의의 시작은 기도였다. 당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일제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불과



몇 십 달러의 소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나라에서 산다. 그 중추적 역할을 기독교가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여러 위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반(反)성경적

인 움직임이 이 사회에서 휘몰아칠 기세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목회자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는 “어느덧 한국교회원로목회자의 날이 5회째를 맞았다며 교회 내에서 먼저 은퇴·원로목사님들을 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추진위원장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원로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은, 그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빛을 진 후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리는 자리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원로목회자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리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부디 원로목회자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김진옥 목사(재단 이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서 임원순 목사의 인사말, 조석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박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의 설교, 특별기도(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국내 1만2천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을 위해), 감사패 증정, 2018 자랑스러운 원로목회자대상 시상식 등의 순으로 드려졌다. 수상자는 목회자 부문, 국내선교 부문, 농어촌선교 부문에서 각각 이규호(경주주정교회)·최태권(늘푸른교회)·유연왕(영신교회) 목사가 수상했다.

(전체 기사 및 행사사진은 JTNTV, <http://jntv.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음)

순복음춘천교회 창립 46주년 기념

2018 신년축복부흥성회 성료

순복음춘천교회는 지난 1월 8일(월)-12일(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대주제로 서길원 목사(상계감리교회),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윤태호 목사(JDM 대표), 장준규 장로(전 육군참모총장),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가 선교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다.

1월 8일(월) 저녁부터 시작된 이번 성회는 “축복의 통로로 세움 받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주제로 서길원 목사(상계감리교회), 주승현 교수(전주기전대학), 윤태호 목사(JDM 대표), 장준규 장로(전 육군참모총장),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가 선교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다.

첫날 성회에서 서길원 목사는 사도행전 7장 54~60절 중심으로 「스테반처럼」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서 목사는 첫째, 복음을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하며(현장영성), 둘째, 죽을 각오로 사는 영성이 있어야 하며(순교적 영성), 셋째,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며, 넷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둘째 날 성회에서 간증을 한 주승현 교수는 로마서 9장 1~3절 중심으로 「최근 북한 실상과 통일선교준비」에 대해서 강의와 간증을 하였다. 셋째 날 성회에서 윤태호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교회」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넷째 날 성회에서 간증을 한 장준규 장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군생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군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간증하였다.

마지막 날 성회에서 김한호 목



사는 사도행전 6장 1~7절 중심으로 「전문성과 고백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한국교회가 섬김(디아코니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작은 힘을 보탬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다.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는 “신년축복부흥성회를 통해 성도들이 주님과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선교의 관점과 가치관이 넓어져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과 선교적 영성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사랑행복축제, 택시데이, 사랑의 무료 진료, 문화예술축제, 해민사랑의 집(무료 급식), 지역교회 및 불우이웃 사랑의 쌀 전달,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 지역행사 및 군경, 하나원 섬김, 사랑행복축제 수익금 및 물품 춘천시 전달, 정기연주회 등 다양하게 지역사회 발전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선교사역으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과 2012년부터 매년 21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섬기고 있으며, 21사단 사랑의 독서카페 기증, 군인교회 부흥회 및 기도회 인도, 사랑의 온차 및 부활절 계란 나누기 운동 등으로 헌신하고 있다. 춘천시에서 수탁받은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을 통하여 춘천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며, 어르신들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선교사역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선교비전을 품고 있으며, 수많은 현지 사역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선교센터 건립에도 열정을 쏟으며 해외 성회를 섬기고 있다.

(JTNTV, <http://jntv.kr>에서 기사 전체를 사진과 함께 볼 수 있음).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신년예배

전군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자



남가주예비역기독교군인회(회장 김희창 목사)는 지난 13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정기예배를 드렸다. 최정학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할렐루야 뮤직선교팀의 경배와 찬양, 최만규 집사가 대표기도를, 오재식 집사가 성경봉독(시편 84:1-12)을 한 후, 회장 샘 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가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샘신 목사는 “시편 84편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간절한 심경, 그로인한 순례길의 행로에 대한 언급과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다. 주의 집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인의 간절한 사모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

고 가치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중창팀의 특송, 비전시각장애인센터팀의 축하연주를 하고, 부회장 차기학 목사(남가주예비역기독교군인회)의 사회로 신임원 임명과 비전선포식이 진행된 후, 김혜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남가주지회는 김희창 회장과 회원 공동명의로 비전선포식을 갖고, 본 회의의 미래의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비전선포문은 “미주 한인교회와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부흥과 발전에 사명을 다 할수 있도록 기도한다.”등 11개항을 담고 있다.

△회장: 김희창 목사 △부회장 최정학 장로, 차기학 목사 △총무: 백소피아 △서기 최만규 집사 △회개: 오재식 신정현 기자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노회장	서기	회의록서기	회 계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노회장 : 장한국 목사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 (031)424-7612



진리총회(대한노회) 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구,내손동)

노회장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010-9621-9627 ☎ (031)424-7612 (JTNTV, <http://jntv.kr> 지저스타임즈)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TV 가정예배 칼럼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934-1232(대)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예/배/안/내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막 11:17)

대 예 배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주일예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 야 기 도 회 매일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 (02)934-1232

· 요한계시록 4장(34)

사도요한이 바라본「성령인 일곱 영들의 권능

일곱 영들이 네 생물을 통하여 순교케 하신다!

우리의 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진 것들이 겉으로 나오면 그것이 외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벌거숭이 양의 붉은 몸에 털이 나와서 온몸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외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서 온몸이 양털같이 하얗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속과 겉이 온전히 성화되어진 상태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임 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속이 빛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꼭 차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신앙정절을 지키다가 죽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수가 우리를 죽일 때 그를 친구같이 좋게 여기고 순종하면서 죽임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 - 본문 6절-9절에 '네 생물'이 헬라이어 스테판 사본에 '테사라 조아'는 '네 생물'을 말함니다. 김제임스 한글성경에도 헬라이어 원문대로 '네 생물'로 번역했습니다. 네 생물 가운데에 성령하나님이 계시므로 네 생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사역하는 존재입니다. 또 겔 10:20에 네 생물들은 그룹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전에 자비석을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덮고 있습니다(출 25:18).

가브리엘 천사장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의 사명은 메신저 역할입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다니엘에게 3주 만에 종말 계시의 응답을 가져오고, 사도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읽는 자로 하여금 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브리엘 천사가 맡는 일곱 영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천군천사를 움직여서 말씀을 받은 자를 호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 명의 천사보다 백만 명의 천사가 동원되면 그만큼 더 큰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사는 성령(일곱 영)의 필요에 따라서 동원됐다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 생물은 천사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그룹,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과 마가엘 천사장보다 더 하나님께 밀착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네 생물은 성령과 관계되고 또 우리와 관계됩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천리총회 총회장

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 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주관적 구원, 즉 예수님이 2천 년 전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오늘 우리와 연관되어져서 죄 사함의 구원효력이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내 것 되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일곱 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일곱 영들이 은혜시대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환란 때에 이루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 날에는 성령인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철장권세로 예언하게 하고 순교시키는 일을 합니다. 은혜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요, 순교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7장에서 스테판을 모델로 순교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순교당하는 과정에 성령인 일곱 영들로 순교하게 했지만 문자로서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 다. 장차 환란 날에는 대량적인 순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는 때가 대환란 날입니다(계 13:15). 그 때에는 성령을 통해 순교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환란 날에는 은혜시대 때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 때에는 같은 성령인 일곱 영들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인데 장차 환란 때는 일곱 영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일곱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네 생물이며 이 네 생물의 영이 스테판을 순교시켰고, 장차 환란 날에 우리를 순교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 성령 즉 일곱 영들이 하시는 바, 그 일곱 영들이 네 생물을 통하여 순교케 하십니다.

네 생물 가운데 있는 일곱 영들이 첫째 생물에 의하여 우리 속에 있는 짐승 같은 요소를 완전무결하게 제거시킵니다. 그것이 첫째 생물인 사자 같은 생물입니다. 사람의 욕심, 정욕, 질투, 시기 등 육에 속한 짐승 같은 요소들을 잡아먹듯이 사자 같은 생물의 역사로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일곱 영)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를 오직 영의 생명으로만 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눅 18: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느냐 하시니라."(KGE바이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Kingdom of the God)이 임하기 전(前)에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不義)와 바벨화 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멸하신다. 이때에 참 믿음을 소유케 하신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靈感)으로 기록되고 섭리(攝理)로 보존되어 가는 성경(聖經)을 찾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아수아)의 보혈로 범법(犯法)들과 불법(不法)들과 죄(罪)들을 씻어주시심을 믿도록 하여 이기게 하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경대로 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Test)과 공증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권세와 악마들의 계계의 시험(Temptation)과 육체의 삶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구원(救援)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류(人類)의 시조인 아담의 10대손인 노아를 통하여 셈(Shem, 황인종)과 함(Ham, 흑인종)과 야벳(백인종)을 주셨다. 셈(Shem)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이 시작되게 하셨다. 셈족 중에서 아시아의 서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집트(Egypt)에서 곧 종살이 하던 곳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그 후에 시내 산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 라는 사상과 잘못된 메시아(마쉬아흐, Messiah)의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메시아(초림의 마쉬아흐)를 기다려야 했는데 영광의 메시아(재림의 마쉬아흐)를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고난의 메시아(마쉬아흐, Messiah)를 배척하여 예수님(아수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하여 원(原) 감람나무가지에서 꺾어져 나가게 되고(롬11:24) 이방인들이 절필임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인들을 고토로 들어키신다는 언약이 성취 되어가고 있다.

한(Hellenism)의 후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레니즘(Hellenism)의 영향을 받았다. 필로(Philo)는 성경을 알레고리(Allegory)적 해석법을 시작하여 인본주의(人本主義) 역사를 펼쳐 나가게 했다. 필로(Pilo) 교부와 펜타누스(Pentanus)교부와 클레멘트(Clement) 교부로부터 헬레니즘과 성경을 알레고리(Allegory)적으로 해석 되어지는 것을 전수 받았던 오리겐(Origenes) 교부는 6난 성경을 편집하였다.

그는 에비온과이퍼 철학자(哲學者)로서 헬레니즘과 인본주의자이므로 예수님(아수아)의 인성(人性)을 따라 가면서 소수 필사본 성경(알렉산드리아 본문)의 모체(母體)를 편집하였다. 그 사본은 하나님의 왕국(마11:12) 구절은 오역하고, 마 11:12[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마 11:12 ajpo: de: tw'n hJmerw' n !lwavnnou tou baptistou e' fw' alrti hJ basileiva tw'n oujranw'n biavzetai kai: biastai: alrpavzousin ajuthvni

지옥(막 9:44, 46)구절은 '없음'으로 빼고 막 9: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막 9: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막 9:44 o' ipou oJ skwvlix ajutw' n ouj teleta' /, kai: to: pu' r ouj shevmutai 막 9:46 o' ipou oJ skwvlix ajutw' n ouj teleta' /, kai: to: pu' r ouj shevmutai

하나님의 뜻(마 17:21)에 대한 구절은 없음. 마 17: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 17:21 .tou' to de: to: gevno' oujk ejkporeuvetai ej mh: ejn proseuch' / kai:nhsteiva/ 예수(아수아)의 오신 목적(마 18:11)에 대한 구절도 없음, 마 18: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마 18:11 h' lqen ga:r oJ uiJo:," tou' ajnqrwpou sw' sai to: ajpolwlv'."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계 22:14)라는 구절을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등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성경을 변경시켜 편집하였다. 계 22:14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계 22:14 Makavrioi oiJ poiou'nte' ta:" ejntola:" aujtou', i' na elstai hJeJxousiva aujtwn' ejpi: to: xuvlon th'" zwv' kai: toi' pulw' sin ejjevqlwsin ejj' th:n povlin

야벳의 후에는 클레멘트(Clement) 교부로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성경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것을 기초로 하여 유럽에 신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과학(科學)과 문명주의(文明主義)와 고고학으로 중립사본의 모체(母體)를 영국과 독일에서 편집(編輯)하였다. 이것이 신 신학(新神學)과 자유주의(自由主義) 신학과 각종 이단(異端)의 근원(根源)으로 시작(始作)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歷史)의 시작을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셈족인 이스라엘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케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 아시아에서 해가 뜨는 곳에 있는 셈족의 후예를 찾아 성경대로 믿는 열매 맺는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한국(KOREA)을 선택 하셨다(사



원장 김수정
작은 그룹의집 선교회

59:19, 마 21:43). 한국(KOREA)은 복음이 들어 온 후에 성경이 번역 된 나라가 아니고 선교사님과 신앙의 선진들이 중립사본과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과 70 인역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므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삭제, 첨가, 오역된 성서로 번역본 성서로 출판 되었다. 이것을 대한성서공회를 통하여 출판 된 것을 사용하여 왔다.

하나님의 왕국(the Kingdom of God)이 임하기 전(前)인 이 세상(世上)의 종말을 맞이한 때에 1991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도 12사도들과 120문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물로 성령으로 거둔 자들을 통하여 섭리로 보존하여온 다수필사본 계열(안티오크 본문, 비잔틴본문)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게 하겠지만 자신들의 신앙관으로 번역하며, 또한 교단교리에 의한 번역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한국을 택하셨으므로 삼위일체(三位一體)신앙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오역되지 않은 교리와 교파에 의하여 번역되어진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케 하시고 섭리로 보존 되어 갈 성경이 출판 되도록 '구하라 주실 것이요'(마 7:7)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네 때가 되매 내가 속히 이르리라' 말씀하셨다(사 60:22 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제는 준비된 번역(翻譯)위원들과 준비된 어문학자(語文學者)들과 준비된 교정(矯正)위원들과 준비된 교열(矯閱)위원들과 준비된 감수(監修)위원들과 준비된 출판(出版)위원들을 통하여 역사 해주시 것을 믿는다. 준비된 물질을 모아 출판케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롬(!/v:)!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규필 목사
(합동부수 총회장)

동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동경 목사

서울소망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경규 목사

다니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사금열 목사

예심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발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한국 목사
(천리총회장)

주사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송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백은성 목사

안산임마누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031-406-7793 H.P : 010-2479-7793

한기보협 2018년 교단장 및 교계지도자 신년하례예배

성정보수원형회복운동의 목적은 타락한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있다



사단법인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양철 목사)는 지난 1월 11일(목)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을곡로 190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2018년 교단장 및 교계지도자 신년하례예배를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 예배인도로 진행되었다.

예장 합동제일총회 총회장 신한철 목사의 대표기도로 시작된 예배에 예장 예신총회 총무 박종철 목사가 성경봉독(행 26:19)하고, 대표회장 지양철 목사는“시대의 이상”이란 제목으로 2018년 새해 신년메시지를 전했다. 대표회장 지 목사는 작금의 한국교회의 타락상을 강도 높게 꼬집으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야 하며,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성경원형을 위한 회복은 바로 타락한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있다고 설교했다. 또한 잘못된 성경해석을 하면서도 마치 바른 정통진리인양 합리화하고 있는 이단에 가까운 목회자가



있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목회자의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어 1. 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기독교 성경원형(본질)회복연합회 총회장 고명수 목사, 2. 본 협의회 발전(총회,단체)을 위하여 협의회 법인이사 김준희 목사, 3.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선교사)를 위하여 예장세계 연합 총회장 이안나 목사 등이 각각 특별기도에 나섰고 법인이사 사금열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종교인 소득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 3가지 예를 들면서 종교인 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데 이 세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종교인 소득이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는 필히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유리하다고 했다.

즉 목회자 개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면 종교인 소득이 유리하지만 2000만 원 이상 받는 목회자는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기타소득은 80%를 기본 공제가 되는데, 즉 2000만 원을 신고하면 160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4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부과)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를 받는 분은 기타소득이 유리하고, 2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종교인 소득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목회자는 종합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매월 5월 말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고, 1년 동안에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임대나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1년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종교인 소득에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육자는 다 종교인 소득으로 할 수 있는데 단 청빙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그 외 직원들과 사찰집사, 신문방송통신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면서 자세한 것은 한기보협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에게 문의하면 자료가 확보되는 데로 유익한 상담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대표회장 지양철 목사는 복귀한 교단장과 가입교단에게 축하패를 증정했다. 복귀한 교단장은 예장보수연합 총회장 이경희 목사이며, 신임교단장은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김형철 목사, 세계제자훈련원 원장 이형조 목사, 예장세계총회 총회장 손운기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성경) 총회장 김승현 목사 등이다.

한편 한기보협 제33회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회장과 임원선출을 하게 되며 오는 2월 12일에 정기총회가 진행되며 단 장소는 각 교단장과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자세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한기보협 제5회 미스바 회개기도회

옛 신앙을 회복하자(렘 6:16)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신학위원회 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2018년 새해 들어 지난 1월 16일(화) 오전 11시~오후4시까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한기보협 제 5회 미스바 회개기도회를 열어 조국 대한민국과 기업과 위정자들, 한국교회를 위하여 작금의 한국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를 원하고 바로세워지기를 위하여 눈물과 통성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지도위원 김준희 목사(기독교한국성결회)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제자총회 총무 김성립 목사가 기도, 총무 광영민 목사(예복총회장)는 성경 창 35:1-8절을 중심으로“신앙을 개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포했다.

예복총회 총회장이며 본회 신학위원회 총무 광영민 목사는 ‘야곱은 자신뿐 아니라 식솔들에게 신앙을 개혁할 것을 명하시고, (사)한기보협 신학위원회가 새해에 미스바 기도회로 각처에서 모인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때에 야곱이 행한 신앙개혁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1. 신앙개혁의 방법은 첫째, 오직 하나님 신앙을 고수해야 한다.(2,4절), 오직 상전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다.(2절) 그것은 자신을 정결케 함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새생활의 결단이다.(2절) 야곱이 의복을 바꾸 입은 행위는 영적·도덕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다.(고후7:1)

2. 신앙 개혁의 이유

첫째,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3절) 둘째,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 함께해주셨기 때문이다.(3절) 3.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다.(3절)

3. 신앙을 개혁한 결과는

첫째, 야곱 자신뿐 아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뻘에 이르게 된다.(6절) 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경험했다. 둘째, 단을 쌓게 된다.(7절), 뻘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여 그곳 이름을 “엘뻘엘”이라 칭하였다. 우리에게 신앙과 삶에서 개혁할 부분은 과감히 개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보수연합총회 이경희 목사가 헌금기도를,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의 광고, 예장진리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오후 주례 기도순서로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의 진행으로

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총회 조미애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감독 이의근 목사의 ❶미스바 회개기도에 대해서 취지와 설명이 있는 후 연합하여 통성으로 회개기도에 들어갔다. 예장진리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❷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의 이 난국을 회복하는데 있어 기도했다.

❸기업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합동제일총회 총회장 신한철 목사가 현 정치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통성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❹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정화를 위하여 기독교한국 성결회 김금자 목사의 인도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❺세계평화와 복음 저지를 위해서 진리총회 김은임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무리기도를 했다. ❻국가의 바른 역사관을 위하여 보수연합총회 문혜숙 목사, ❼한국기독교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지역감리사 강성은 목사, ❸세계선교와 성령충만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예복총회 박달수 선교사, ❷종교세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보수연합 총회장 이경희 목사, ❶한기보협과 신학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지도위원 김준희 목사(기독교한국 성결회)등이 2018년 신년벽두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아쉬운 작별을 나누는 가운데 각자 일터와 섬기는 목양지를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GOODTV·월드비전·한신교회, ‘케냐 선교’ 위해 힘 합친다

GOODTV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한신교회가 가난과 질병, 물부족으로 고통 받는 제 3세계 아이들을 돕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더 많은 나눔과 사랑이 지구촌에 퍼지길”

GOODTV(대표이사 김명전)와 월드비전(나눔본부 전영순 본부장), 한신교회(담임 이윤재 목사)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GOODTV 사옥에서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 ‘체인지 더 월드(Change the World)’ 협약식을 가졌다.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GOODTV와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신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케냐 오실리기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특별히 이윤재 목사는 교회에

서 ‘비전주일’을 정하고 나눔에 대한 가치를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윤재 목사는 “GOODTV와 월드비전이 함께하

감사하다”며 “이 기회를 계기로 더 많은 나눔과 사랑이 지구촌 곳곳으로 퍼지고,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GOODTV김명전 대표이사는 “복음과 축복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GOODTV도 이를 적극 알리며 미디어선교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윤재 목사가 방문하는 국가 케냐는 성인인 맴률이 72.2%에 달하는 국가다. 특히 오실리기 지역은 유목민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7세부터 9세까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내 5세 미만 아동 중 13.8%가 저체중 상태로, 이 중 6.5%는 심각한 저체중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다. ‘체인지 더 월드’팀은 오실리기 지역을 방문해 초등 학교와 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교육사업과 에이즈 예방, 영양상태 개선을 돕는 보건 사업,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아동 후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GOODTV와 월드비전은 지난해 1월부터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을 통해 한국교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금까지 꿈의교회, 세계비전교회, 안산순복음교회, 옹히 오실리기 지역은 유목민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7세부터 9세까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내 5세 미만 아동 중 13.8%가 저체중 상태로, 이 중 6.5%는 심각한 저체중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다. ‘체인지 더 월드’팀은 오실리기 지역을 방문해 초등 학교와 유치원을 증설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교육사업과 에이즈 예방, 영양상태 개선을 돕는 보건 사업,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아동 후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GOODTV와 월드비전은 지난해 1월부터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을 통해 한국교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금까지 꿈의교회, 세계비전교회, 안산순복음교회, 옹히 오실리기 지역은 유목민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7세부터 9세까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내 5세 미만 아동 중 13.8%가 저체중 상태로, 이 중 6.5%는 심각한 저체중으로 생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표어 : 새해 새 마음 새 목회 (고후 5:17)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서동기 목사
(서울소망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김명국 목사
(양지중앙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교회)

주지항 목사
(사천대학교교회)

서정식 목사
(중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정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교단은 주 안에서 뜻을 같이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총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담임목사 모상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밤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겨울 7:00)

새벽예배 오전 5:00

교회를 섬기는 분

부 목 사 모정선, 박민수, 성남수, 모성은

협 동 목 사 장정화

전 도 사 윤영목, 송선택, 띠베트남(신학교유학)

협동전도사 추정희

파송선교사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김이경

시 무 장 로 송영문, 천은성, 정승만,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모상후, 송현종

협 동 장 로 이병화

은 퇴 장 로 고재현, 원복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주소 :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 061)272-4908, 팩스:(061)276-1006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18)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지난호에 이어서〉

구약시대에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죽여 번제단에 제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고 나는 새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분이 아니셨으면 누가 내 대신 죽어 내 죄를 씻어 주시며, 의롭다 칭하시고 나를 구원해 준다는 말인가! 그분이 나 대신 달리신 십자가의 실제 제물은 나였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내가 제물이 되어 영적으로 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이 빛을 발할 것이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또 꼭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가? 왜 예수인가? 깊이 묵상하자.

2) 대속적 죽음과 칭의

구원의 제사는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어야 한다.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제물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향하시도록 불태워져야 하며, 또 죄는 호리라도 남아서는 안 되므로, 모든 희생제물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야 한다. 예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호리라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처절함을, 번제단에서 그 잡은 동물을 불태우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완전히 태워 없애버린다는 의미이다.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의롭다 함을 받게 되므로 그 죄 덩어리를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 높이 달리 물과 피를 다 쏟아냄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하셨다. 구약에서는 내가 살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성막으로 들어가 나 대신 양을 죽였던 우리가 이제는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다. 그러나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돌연 변신하여 '예수 대신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는가. 자기들이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며,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주님, 그 피 흘림과 고난과 고통이 바로 우리의 것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비웃으며 즐기는 인간들의 간악함이어! 그들은 예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곳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며 조롱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쫓겨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6)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많없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섯 시간의 고통 중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다. 오늘날도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했던 우리들 위에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죄는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고 '너희는 의로워졌느니라' 하는 칭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내리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한 마디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을 들어보라. 이제는 매일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단번에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3) 산 제사와 자아의 죽음

성막 제사에서는 죽은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 없었다.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하며, 일 년 된 흠 없는 송아지나 어린 양을 바쳐야 했다. 번제단에서 제물로 죽는 짐승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다. 죄 없는 짐승 하나가 죽을 때마다 누군가의 죄가 사해져 의롭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나 수많은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도 이것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아니 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 번제단에 바쳐졌다. 아담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자녀들이 지옥으로 갈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누가 알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질고와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상의 산 제물'되어 돌아가셨다.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였다.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서야 우리 대신 죽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번제단에서 슬피 울며 죽어가는 짐승들의 비명소리, 그 소리는 바로 죄인인 내가 죽는 소리이며, 번제단의 무서운 불꽃 속에 타는 고기 덩어리는 내 죄의 덩어리였다. 그 은혜도 부족하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며 갇은 수모를 겪으셨다. 희생제물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듯,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신을 하는 비명소리, 못 박는 망치의 둔탁한 소리…… 피눈물 흘리시며 온갖 고초를 당하신 것은 나를 대신하신 것이다. 불 살려진 제물처럼 예수가 대신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한국교회, 미래전략있나?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주류종교이다. 그러나 당당함과 의연함을 잃고 너무 자학적이다. 그리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이다. 마치 머리까인 삼순처럼 말이다. 물론 일부의 일탈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침은 뱉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난도질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이 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한국교회는 늘 프레임 싸움에서 늘 지고 있다. 특정세력이 쳐 놓은 프레임 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며 일회성 이벤트에 몰려다니다 시간과 기회, 그리고 에너지들 다 낭비하고 만다. 변변한 연구소 하나 없다. 장기 지속적 전력을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로 분열하다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 최근 10년이 그랬다. 한국교회는 '연합'을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대표회장' 뽑기라는 놀이에 열중하며 분열해 왔다. 그래서 "연합기관 때문에 연합이 안된다"는 어느 교단 전총회장님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지원 예산을 보면 불교가 75%(700억) 정도가 되고 천주교 10%(100억) 기독교가 4%(4억~5억)미만 정도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년 5억원 미만이다. 연합기관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것이다. 여러 행사를 빌미로 2~3천만원 정도 밥값이나 용돈을 집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생계유지하는 이들이 밥먹고 하수인 노릇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는 정부의 종교예산 관련 국고지원은 편성과정부서 집행까지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먼저 이런 국민혜세를 안받겠다는 선언과 함께 받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종교계가 종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고 정부 또한 종교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종교 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관계'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낭비하거나 생계형 기관을 부양시키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가하면 한국사회는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유지해 왔으며, 격한 이념적 갈등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법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학내 종교 차별 실태 조사' 연구용역은 너무 했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문제를 공격해온 종자원에 용역을 맡기며 지원한 것은 종교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독교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종교편향이다.

일제시대에도 하지 않은 일을 민주주의 시대에 기독교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종교활동을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종교사학에서 사학 교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량대로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전파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국

이효상 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



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상식에 반하여 기독교의 정책 및 선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비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불교 단체인 종자원과 함께 특정종교를 탄압하는 종교차별 전략을 전개해 왔다. 더 나아가 동성애 조장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 일까?

이런 국가인권위의 편향성 시정도 필요하다. 종교사학의 설립이념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얼마나 교회는 장기 전략을 가지고 대처했는가?

또한 형평성 잃은 종교인 과세의 주된 타겟은 '개신교'가 아닐까 싶다. 교회는 면세하고 성직자는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의도가 성직자를 근로자로 만들고 노조를 설립하라는 것은 아닌지,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게 된다.

올해 6월은 지방선거가 있다. 이런 정치권에 출서기로 교회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선거철에 교회를 이용하여 한몫보려는 정치꾼들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3.1운동은 교단이 아닌 성도들의 개인적 참여로 이뤄진 좋은 전통이다. 그러나 교회가 특정한 정권과 유착될 때 나중에 그 정권이 어려워지면 기독교도 같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교회나 교단, 연합기관은 정치일선에 한발 물러서 크리스천 개인이 시민단체 등의 사적 영역으로 선거에 참여토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전략을 가지고 지역감정에 동조하거나 특정 정파에 출서기보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전략에 익숙해져야 한다. 지역별로 정책 검증으로 교회의 가치관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을 발전하고 심화시켜 한국교회가 사회에 존경받는 민주적 지도자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진정 100년이 멀다면 향후 50년, 10년의 청사진을 가지고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를 실천할 인재가 있는가? 단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지속 가능한가? 전략이 필요하다. 2018년,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과 레퍼토리를 개발해야 한다. 교회가 더 이상 머뭇머뭇하기엔 시간이 없다. 교회여 쏠지 말고 당당히 가자. 잔머리 굴리지 말고 뚝뚝하게 정도를 걷자. 그리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더 이상 각자도생도 어렵다. 있는 힘을 다해 교회와 목회자가 연대하자. 이제는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할 때다.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점영의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2층)
기도원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2층)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여민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8 동여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일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에녹부흥신학 모집

설립자 / 대표	이사장	학 정 / 이사	이 사	부학장 / 이 사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이호성 목사	임순하 박사	정기남 목사	김명옥 박사	김영애 전도사

교 수 진

곽영민 교수, 임순하 교수, 김명옥 교수, 김선우 교수, 박경자 교수
김성기 교수, 최동준 교수, 모성춘 교수, 윤동훈 교수, 김정우 교수
윤주만 교수, 최혜숙 교수, 이선한 교수, 김지연 교수

과정	수업일	학제
기독교예배 과정	매주 목, 금, 토.	2년 6학기
신학부 과정	매주 목, 금, 토.	3년 9학기
목회대학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2년 6학기
신학연구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3년 9학기
학술원	매주 토.	1년 3학기
찬양치유교실	매주 목.	2년 6학기

※과정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교단 가입 현황

저녁에녹부흥신학은

- *교육은 방학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 *정통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교육하고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배)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복종회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식 회원 교단이며, 본 협의회로부터 신학 교육을 인증 받았습니다.
- *총회장 박영민 목사는 본 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및 신학위원 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 *부흥사 및 매능 사역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국제에녹부흥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인천)등불교회.
· 주소: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웨신총회 2018년 신년하례 ‘전진다짐’

총회장 허창범 목사 ‘변화와 개혁, 성장 부흥을 추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웨신)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지난 1월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푸른솔교회에서 2018년 새해 교단의 도약과 만복을 기원하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신년하례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복음의 진리로 개혁·변화·성장하는 총회”(고후 5:17)를 목표로 오전 11시 제2부총회장 신언창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서기 박정균 목사의 기도, 이찬미 목사, 그레이스봄찬양단의 찬양, 회의록서기 임용선 목사가 성경봉독(시 105:17-22)을, 국제신학대학



원대학교총장 안성삼 목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시험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안성삼 총장은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 요셉의 인격을 먼저 다듬으셨다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시험들(테스트)을 거치는 단계를 통해 1. 배신의 시험

에서 요셉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형제들에게서 배신을 당했으며, 예수님도 최 측근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 성결의 시험, 3. 성실의 시험, 4. 인내의 시험, 성공의 시험을 언급하면서 요셉은 높은 지위에 당했지만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 2. 성결의 시험, 3. 성실의 시험, 4. 인내의 시험, 성공의 시험을 언급하면서 요셉은 높은 지위에 당했지만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시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제1부총회장 오상열 목사의 사회로 국가와 민족을, 한국교회와 교단성장을, 종교인과세 등 현안 문제를 놓고 통성기도와 가졌다.

또한 이날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신년사에서 일어나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총회와 노회, 산하 지교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변화와 개혁,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한 해가 되자며 격려하고 소망을 기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일어나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총회와 노회 그리고 산하 지교회가 되는 것과 새해는 국가의 안보위기, 지진, 사회적불안과 Post-modernism철학사상으로 인해 진리가 혼잡하고 동성애, 이슬람문제 등으로 복잡한 사회속에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헤치며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며 병든 영혼 일어나게 하여서 어둠 세상을 밝히는 살아있는 총회가 되자면서 영적으로 한국사회 곳곳에 있는 에스겔 골자기를 보아야 하고, 사명자답게 일어나 교회마다 전도하는 교회, 복음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의 진리의 깃발을 흔드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다.

둘째, 허 총회장은 새롭게 변화

와 개혁을 추구하고 2018년에는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고 변화된 모습의 총회원이 되길 바라고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을 닮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답게, 목회자답게, 양을 치는 목자답게,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변화되고 개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셋째, 허 총회장은 성장과 부흥하는 총회를 만들자고 직시했다.

2018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웨신총회 가족과 지교회, 노회, 총회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과 축복을 기원하고, 2018년 새해를 도약의 해로 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회계 정순옥 목사의 헌금기도와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축사, 직전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웨신총회는 총무 박우재 목사의 진행으로 2부에서 총회장과 전체 노회장의 케이크 커팅을 갖고, 총회 원로 이흥규 이규 이이중 목사의 새해덕담을, 전 부총회장 하종우 목사의 축사, 박종만 목사의 축가와 총회원 모두의 하례인사를 가졌으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을 가졌다.

또한 3부 순서로 중부노회장 황봉기 목사의 오찬기도에 이어 푸른솔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마련한 갈비탕과 다과와 떡을 때며 덕담을 나누면서 이구동성으로 갈비탕이 전문식당 못지않게 맛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웨신이여

시인 하종우 목사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사랑과 순종의 두 기둥을 세우고

인내와 경륜의 벽돌을 쌓고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두르고

인자와 보호하심의 하늘 지붕을 덮고

은혜와 지혜의 통로를 내어

(감사와 깨달음이 머무는

푸르고 푸른 초원을 가꾸어)

양떼들 노루 사슴 노니는

웨신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정어품송 내외

묵연 김영환

수많은 세월의 흐름을 어찌 표현하랴
늘어진 머리는 땅을 닿는데
너무도 힘이 없어
세월의 흐름 피할 수 없어
한쪽 머릿털을 자를 수 밖에

남아 남아 남을 불러본다
안방과 사랑이 이리도 멀까
산 굽이 굽이를 돌아 18리길
낭군의 머리털은 떨어지고
800년 세월의 깊은 한숨짓네

사랑하는 남을 불러보고 싶어도
정승택 인지라 불러보지도 못하는 남이
사랑한다 말 못하고 묵묵히 지켜 온
600년 세월 어디 가는가
가지마다 힘에 지쳐 늘어지고 떨어지고

검은 머리 파뿌리 아닌
가지마다 세월의 흐름이 연연한데
우리네 인생은 언제나 영글을까
두면(面)을 오고가는 부질없는 정승택
18리길 산굽이야 우리네 소식 전해주렴

양정섭 목사, 단체연합 신년하례회 연합예배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사)한국기독교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와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 3개 단체가 연합하여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가입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모여 신년하례연합예배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예배인도로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도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가 성경 신명기 30장 1-14절을 봉독하고, 개혁중창단의 찬양과 예정정통총회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연주에 이어 사)한국기독교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말씀 순종이 소망입



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대표회장은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복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복이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운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목매어 있는 조선사

람,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땅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 들뿐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뿐입니다. 이것이 오래 전 선교사의 애라는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님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곳곳에서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희생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종교개혁이 세계를 향하여 크게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천지창조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소원 성취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총의 하나님이시며 번성케 하시며 대적자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금년 한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말씀대로 번성케 되시고 대적자를 물리쳐 열리는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선포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기도를, “3개 단체인 사)한기협, 세교연, 한개협발전을 위하여”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임정태 목사가 기도하고,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기도총회 증경총회장 김성환 목사가 기도한 후, 3개 단체장의 인사말씀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전하고 광고 후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신년하례회 연합예배를 성대하게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표어 : 복음의 진리로 개혁·변화·성장하는 총회(고후 5:17)

웨신 총회 임원



허창범 목사



이영풍 목사



오상열 목사



신언창 목사
(대의사무총장)



김명환 목사



박우재 목사



박정균 목사



김정욱 목사



임용선 목사



조영신 목사



정순옥 목사



최대일 목사



웨신총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 (302호)
☎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목사안수 및 교단 가입문의 H·P 010-8602-3009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 12:2상)

2018년도 교회표어:

오직 예수 (히 12:2)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창범

신원박사·교육학박사·예정웨신 총회장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현주, 양연석

시무장로: 공재용, 안종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창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길 47(영무대) 2층 후문 앞, 수원중 앞
TEL: (02)953-4620 H·P: 010-8602-3009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0:00
2층 900 9:10
주일오후: 오후 7: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새벽 5:00
금요일예배: 새벽 6:00

예을신교신학연구원(사)한국기독교신학연구원
부흥운동본부(사)한국기독교신학연구원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아라
성경: 시편 100:1-3 찬양: 254장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온 땅’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3월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 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끄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제목: 영원히 감사하라
성경: 시편 100:4-5 찬양: 255장

시인은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주의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영원하시며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감사찬송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은 성도들 인생의 주재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해야 합니다.

제목: 완전한 길로 나아가라
성경: 시편 101:1-2 찬양: 258장

다윗은 일상동안 하나님을 좇아 그의 의와 자비를 실천하려는 주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핵심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하심에 대해 찬송하면서 그의 자비와 공의를 좇아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한 자비와 의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와 자비를 행하기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께 거룩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목: 비천한 것을 눈 앞에 두지 마라
성경: 시편 101:3-5 찬양: 260장

다윗이 가는 길은 ‘내 눈 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은 ‘허무한 우상’이나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일’을 말합니다.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함’과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남’에서 사악한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말하고, ‘악한 일’을 알지 않을 것,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하는 것’,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일에 겸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내가 정화해야 할 것
성경: 시편 101:6-8 찬양: 264장

다윗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첫째로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고 함께 있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무능한 권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실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 자신을 따르게 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며 목전에 서지도 못하게 한다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서 인자와 공의로 우선 하나님을 좇아 완전한 길을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온전한 지혜에 서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목: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성경: 시편 102:1-2 찬양: 265장

시인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아마도 오랜기간동안 기도의 응답을 못했을 상황이라 추측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인 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쉬게 하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라면 하루 종일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다가도 고통을 당하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제목: 숲같이 탄내 뱀
성경: 시편 102:3-5 찬양: 268장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속히 응

해 주셔야만 할 이유에 대해 고백합니다. 첫째로 고난으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뼈가 쑹 같아’ 났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오래된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식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이 뼈에 붙을 정도로 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근심과 갈등에서 나오는 그의 신음은 그의 육체를 가죽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시인은 하나님께 신속하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목: 성도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
성경: 시편 102:6-8 찬양: 270장

올빼미와 부엉이는 모두 광야나 황폐한 곳에서 고독하게 사는 날짐승입니다. 시인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추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올빼미와 부엉이와 같은 신세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떠도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암살자를 피하여 피난한 다윗이나 바벨론에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친 자’ (메호랍)라 하여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자세아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제목: 재에 앉아하는 기도
성경: 시편 102:9-11 찬양: 272장

시인은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야 할 기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인은 우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이렇게 재 위에 앉았습니다. 시인은 재에 앉아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재를 음식처럼 먹어야만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아말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말미암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함과 죄로 인해 인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땅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꺼져 가는 불은 서서히 마르다가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지금 시인이 당한 처지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다급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역경 속에서의 기도
성경: 시편 102:12-14 찬양: 273장

시인이 역경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여호와와는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로 잡기 위해 징계를 주실 때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한 기한에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

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경외할 것을 원하시는 분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시온의 돌과 티끌을 동경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 영광 중에 나타나실 여호와
성경: 시편 102:15-17 찬양: 276장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건설하실 때에 일어날 일을 묘사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는 열방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에 세상의 왕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진 유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그들을 통해 세상의 왕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

제목: 창조함을 입은 백성들이 외쳐라!
성경: 시편 102:18-22 찬양: 280장

구원을 받은 유대 백성들은 그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자손 대대로 후손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함을 입은 새로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성소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외치는 탄식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시인의 예고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며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그 날에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배로 (사 30:20-26)

목/회/칼/럼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본지 부이사장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리라.’ 이는 앞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에 따른 징벌·환난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적으로 받는 고난, 징벌, 연단도 있겠으나 범우주적으로 겪게 될 7년 대환란이 바로 고난의 빵, 고통의 물이 된다고 봅니다.

이 환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첫째는 아직도 세상적·육적 미련이 많이 있고 주 재림을 맞이할 자로 온전치 못할 때에 그들을 환난 통해 정결케, 회개 연단시켜 주시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시대 끝나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신앙에 이미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란을 통해 순교시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을 줄은 것으로 빵으로 주시는 것이지 결코 나쁜 것으로 톨로 받아서는 안 됨을 계시합니다(마 7:9 주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정금같이 세우시는 그 복된 길이요, 의의 길, 생명의 길인 고난의 빵, 고통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된 우상들을 던져버리며 ‘여기서 꺼지라.’ 소리치리라.” 종전에는 영적으로 어둡고 믿음이 없어 우상 숭배한 것들을 고난의 빵, 고통의 물을 마시며 시련 통해 깨닫고 그 우상들을 철저히 없애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답후 3:1-

5로 잘못된 우상, 즉 하나님보다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등의 우상을 버리고 그런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같이, 햇빛이 일곱 날들의 빛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고통의 물, 고난의 빵을 먹고 징벌·체적으로 맞은 자리를 주님이 싸매 주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지요. 연단이 끝난 날입니다. 그 날에는 달빛이 햇빛같이 되리라. 달빛은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계명인데 이것이 영을 살리는 진리인 햇빛같이 되리라. 아주 밝아지게, 온전케 되리라는 말씀이지요. 또 햇빛은 일곱 날들의 빛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하늘 영광으로 영생케 하는 진리가 햇빛이면 이 하늘 영광보다 일곱 배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빛을 받으리라. 또 성령 충만함이 햇빛이라면 일곱 배로 더욱 성령 충만한 자, 즉 일곱 영들로 충만케 하리라. 얼마나 감격스런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목사)
25-28 에덴급식수양관(한홍목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위원장)
15-18 광은기[도원]한배(위원장)
22-25 감람산기[도원]이목원(위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위원장)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6-28 다사랑교회(방준현 목사)
29 군산열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장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5 인안칼멜산기[도원]임예제(위원장)
7-9 삼물교회(고정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정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신상)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마영건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8-24 거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은사랑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거창성결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한배(위원장)

2017년 2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위원장)
6-9 감람산기[도원]이목원(위원장)
13-17 선교지세미나
20-22 초대총만교회(김옥남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6 오산리급식기[도원]권경환(위원장)
9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0-13 오정성화교회(이주형 목사)

17-18 장기[노회]
18-20 양배교회(정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8-12 네팔선교지방문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
29-31 초대교회(윤호준 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12-16 선교지지역세미나
18-30 본교회 2주년축성기[대성회]

2017년 7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6 광선수양관(방만석 목사)
10-12 사랑의교회(고정옥 목사)
17-19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24-28 선교지신학여행(세미나)
30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7년 8월
3 안양칼멜산기[도원]임예제(위원장)
7-10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위원장)
14-17 광은기[도원]한배(위원장)
21-24 감람산기[도원]이목원(위원장)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위원장)

2017년 9월
4-8 은누리복음화협의회수련회(임기호총재)
11-14 교단총회
18-21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5-27 비전교회(김경원 목사)

2017년 10월
2-5 추석주간
9-10 장기[노회]
16-18 주사랑교회(방준현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0-4 인도지역자방문주간

2017년 11월
5-8 주안중앙교회(박은순 목사)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27-1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2017년 12월
4-6 살롬교회(고정익 목사)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8년 1월
1-3 양평지역연합성회(최정숙 목사)
8-10 상대교회(황인옥 목사)
14 은천교회(소치영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5-18 배방중앙교회(임영환 목사)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원 목사)
29-1 광은기[도원]한배(위원장)

2018년 2월
5-8 감람산기[도원]이목원(위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위수 목사)
26-28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사)한국기독교보수단총연합회 신년하례가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이

하-한총연)는 지난 1월 8일(월)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발산동 Hotel Airport 회의실에서 본회 총무 고광원 목사의 인도로 2018년 새해 신년하례감사예배를 드리고 회식을 가진 후 탈북자 1호 박사 이애란 박사를 초청 특별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는 총무 고광원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서영웅 목사(퓨리탄장로회 총회장)의 기도

와 안광양 목사(예장연합 총회장)의 성경봉독(사 43:19-21)과 본회 이사 한영희 사모의 특송에 이어 한총연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새 일을 시작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한총연 박 대표회장은 한기보협을 언급하면서 결국 아픔도 극복되면서 오늘 사)한국기독교보수단총연합회를 발기하게 되었고 몇몇 교단과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기도로 2018년 새해 한총연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 대표회장은 한총연이 발기된 것은 철저히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올바른 길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지하게 포부를 밝혔다.

그런가하면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지난날 우리나라가 물질문명의 발달로 한국교회가 이기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등으로 신앙이 점점 변질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꺼진 생명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로 전락되었다며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꼬집었다. 오늘의 한총연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비록 미약하지만 힘을 다해 신본주의, 보수주의, 말씀중심 주의로 초대교회신앙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며 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가운데 이 운동



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본지와외단독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 한총연 개혁위원장 허식 목사가 축사에 나섰으며,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강익 목사(예장연 상임회장), 교계와 한총연을 위하여 보수총연 회장 류신철

목사 등이 특별기도를, 원천기도원 원장 고영란 목사가 헌금기도를,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의 새해인사와 총무 고광원 목사가 광고를, 상임고문 남성운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서기 이상원 목사의 오찬기도로 시작된 만찬은 덕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이날 오후 허식 목사의 사회로 열린 특별 세미나는 탈북자 제1호 박사, 이화여자대학원 식품영양학 박사, 국민대통합 홍보대사 이애란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한총연 신년하례예배 설교와 이애란 박사의 특별 세미나는 JTNTV, http://jntv.kr에서 동영상 참고

한기연 제7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 취임감사 2018년 신년하례 및 시무식 경비 절약해 노숙인 500명 점심 대접



사)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7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교계인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는 석광근 목사(법인이사)의 사회로 송태섭 목사(공동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서기 김병근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으며 군포제일교회 성가대의 찬양 후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순종하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요한 목사(공동회장)가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통일을 위해”, 김효종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김동성 목사(공동회장)가 “본회 회원교단과 단체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한 후 김요셉 목사(초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축하예식은 황인찬 목사(법인이사)의 사회로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취임하는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소개하고, 이어 박위근 목사(증경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증경대표회장)가 각각 권면을, 오희동 목사(명예회장) 조일래 목사(증경대표회장)가 각각 격려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가 각각 축사를 전하고, 목동능력교회 넷시엘중앙단의 축가와 김요셉 초대 대표회장과 박위근 2대 대표회장이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에게 각각 한기연 총대 명의의 축하패를 전달하고, 한장총 유중현 대표회장과 총무협의회 회장 박만진 목사가 각각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날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각계에서 축하꽃다발을 전했다. 3부 오찬은 순서자들이 신년 축하 케익을 잘랐으며, 이계석 목사(공동회장)가 오찬기도하고 기념촬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이 대표회장은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선도하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부족한 재가 한기연 대표회장으로서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도 “대표회장을 잘 보필하면서 한기연이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대정부 대사회에 바르게 전달하고, 연합사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기에 일익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김지영 행정관을 통해 축하 난화분을 보내왔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갑수 종무실장을 통해 난화분을 보내왔다. 또한 김정훈 경찰청장,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김주원 해화경찰서장이 각각 축하 난화분을 보내왔으며, 각 교단 단체, 개인으로부터 화환과 화분이 담지했다.

한기연은 당초 취임감사예식을 2018년 신년하례식을 겸해 성대하게 가지려 했으나 그 경비를 절약해 지난 3일 서울역 해돋이 마을에서 노숙인 5백여 명에서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랑의 밥퍼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무식과 신년하례식을 대신했으며,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노숙인 2백여 명에게 별도로 방한용 기모바지를 선물하는 등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섬김의 사역의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신년인사에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낮은 오리라.’는 전.현직 대통령의 말을 서두로 인용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들은 너희는 자다가 깨 때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을 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예장진리총회 신년하례식 가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라.’(롬 13:11-12) 말씀처럼 새해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화로10, 주사랑교회 본당에서 2018년도 새해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렸다. 서기 박민규 목사(천성교회)의 인도로 1부 신년감사예배가 시작되어 회계 김정미 목사(새예루살렘교회)가 기도를,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사 60:1-3절을 봉독하고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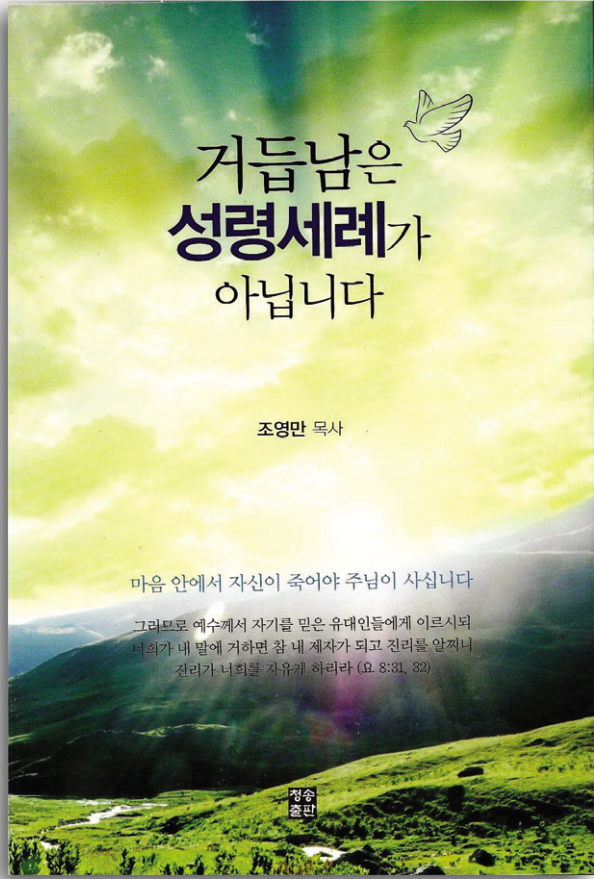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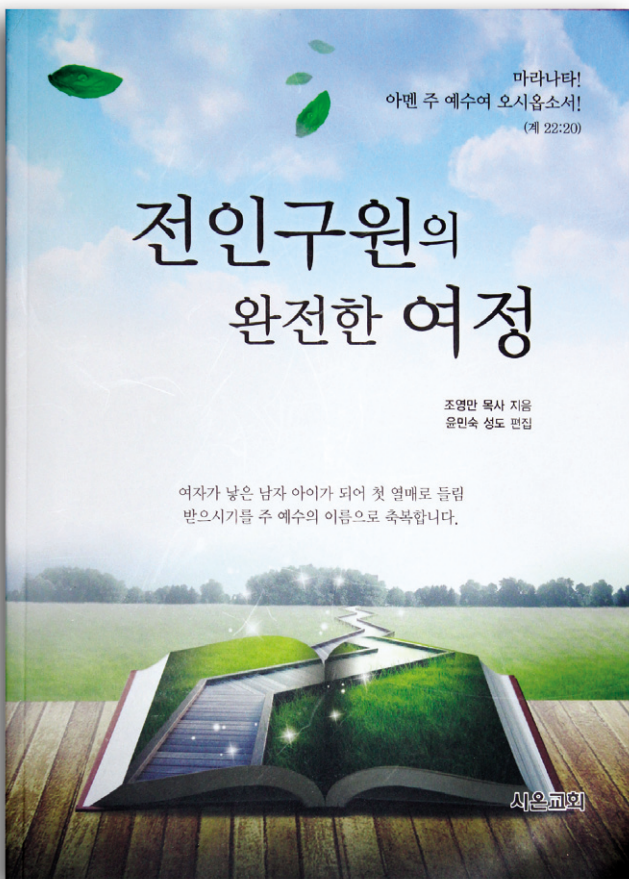
이날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신년인사에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낮은 오리라.’는 전.현직 대통령의 말을 서두로 인용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들은 너희는 자다가 깨 때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을 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영광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믿어 차원 높은 새해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면서 끝으로 은 누리에 복음과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새해에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 진리총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총회와 노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총회 산하 모든 기관과 섬기는 교회,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특별기도회를 가졌으며 오는 2월 필리핀 선교에 대해 광고가 있는 후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신년하례회 예배를 마쳤다.

이어 주사랑교회에서 마련한 정성을 다한 식사대접과 다과파티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축사대회를 갖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신간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바(거듭남을)는 빛은 비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총회를 건너는 것(거듭남을)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거듭남을)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을)를 장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거듭남을)를 성령한 자들(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씻음(거듭남을)을 성령의 새물결 하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믿음(거듭남을)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을)를 은혜위로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거듭남을)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거듭남을)을 의의 겹옷(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아브라함이 85세에 열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거듭남을)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았다고 하신 것(거듭남을)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자 조영만

- 인학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회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M.A)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 사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 현재 인천시문장로회 담임목사

책 주문 방법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8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 가격 : 15,000원
· 다음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예배를 http://cafe.daum.net/choym.com